2014년 6월 27일 제 35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에너지] 미 상무부, 2개 미 기업에 대한 초경질원유(컨덴세이트) 수출 허용: 정부는 원유수출금지 정책의 변화는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원유 수출규제를 폐지할 것으로 관측

[농업] 금년 1-4월 중 미국의 쇠고기 수출은 전년대비 7% 증가했으나, 미국내 생산량 감소와 가격상승으로 인해 점차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경쟁] 세계 경쟁 당국들의 공세적 카르텔 조사: 미 법무부와 EU 경쟁당국은 금년 회계년도 1분기에만 2조 8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사상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함. 우리나라, 브라질, 일본, 호주 등 여타 경쟁당국 역시 1분기에 이미 작년 벌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등 공세적 움직임 지속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미국 상무부(DOC), 컨덴세이트(condensate) 수출 2건 허용

1 수출 허용

o 미 상무부는 자국내 에너지 회사인 Pioneer Natural Resources Co.와 Enterprise Products Partners에 대해 컨덴세이트(초경질원유, Ultralight oil, Condensate)의 수출을 허용(6.24)

- 양사는 남부 텍사스 이글 포드 셰일 유전지대에서 생산되는 가공 컨덴세이트(정제탑을 거쳐 생산된 컨덴세이트)를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상무부에 요청했으며, 상무부는 금번에 이를 허용

  * 이번 허용은 양사의 요청에 따라 상무부가 private classification order를 내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상무부는 가공 컨덴세이트를 석유제품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활용

o 이번 허용 판정은 두 기업에만 해당되며, 주요 언론들은 이르면 8월부터 두 기업들이 소규모로 수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Brookings 연구소는 내년부터 미국의 초경질원유 수출량이 하루 최대 70만 배럴에 달할 것이라 예측

2 주요 반응

o 이번 허용과 관련하여 상무부는'원유 수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no change in policy on crude oil exports)'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수출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중이며, 다른 에너지 기업들도 비슷한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o (긍정적 입장) 미 상원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이번 상무부의 수출 허용 결정이 미국 에너지 환경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 첫 걸음이며, 미 정부는 원유 수출 금지 규정을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밝힘(Bloomberg)

- 미국석유협회(API)의 Zak Cikanek 대변인은 수출 금지 규제의 점진적 폐지가 미국의 오일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논평 (Bloomberg)

o (부정적 입장) 오바마 정부가 원유 수출규제 완화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자, 일부 의원들은 원유 수출금지를 유지해야 미국 국민들이 낮은 가격에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 특히, 현재 이라크, 리비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내 원유의 배럴당 가격이 100달러 이상을 넘을 가능성도 우려 중.

3 수출허용 배경

o 주요 언론들은 이번 수출허용 배경이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컨덴세이트 생산량 증가 및 가격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중.

- 미국의 셰일 에너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초경질원유(컨덴세이트) 생산량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초경질원유 (컨덴세이트) 가격은 배럴당 10달러 이상 하락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격을 밑돌기도 함.

  * 미 에너지정보국(EIA)은 최근 미국 내 원유 생산량 증가의 대부분이 경질유 생산량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

  * 2011년-13년 원유 생산량 증가분은 180만 B/d로, 이 중 96%가 API 40도 이상의 경질유였으며, 2014-15년 원유 생산량 증가분 중 60%이상이 경질유일 것으로 추정(EIA, 6월)

- 초경질원유(컨덴세이트)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원유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 미국의 원유 생산 기업들은 초경질원유의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수출 규제가 완화되어야한다고 주장

※ 내용 관련 문의: 최성준 상무관보 (202-939-5670, s505agnie@gmail.com)

미 육류수급 전망 (Livestock, Dairy and Poultry Outlook)

USDA ERS (2014.6.18)

1 쇠고기

○ **(쇠고기 가격 상승)** 최근 남부 및 서부지역 강우로 인해 도축용 출하가 줄어들어 비육용 소와 쇠고기 가격이 상승

- 최근 몇 주간 남부(Southern Plain) 및 서부(Southwest and West) 지역에서 강우로 인해 가뭄이 다소 해갈되어 도축용 소 출하가 줄어듦에 따라 소 가격과 쇠고기 가격이 상승

* 5월 쇠고기 소매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13%나 상승한 $5.91/파운드를 기록

○ **(소 수입 증가)** 캐나다산 비육용 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소 수입 규모 증가 * 미국은 멕시코·캐나다에서 연간 2백만두 규모 생우(生牛) 수입

- 금년 4월까지 소 수입은 846,943두로 전년동기 대비 5% 상승

- 미국내 소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소 값 상승에 기인하여 캐나다에서 비육용 소 수입이 크게(33%) 증가

- 캐나다산 소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2014년 2.05백만두, 2015년 2.1백만두 수입 예상

○ **(호주산 쇠고기 수입 증가)** 미국내 쇠고기 생산 감소로 인해 금년 4월까지 미국내 쇠고기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 증가(393천톤)

- 뉴질랜드(5%↓), 우루과이(24%↓), 브라질(25%↓)에서 수입한 물량이 감소한 반면 호주(26%↑), 캐나다(11%↑)로부터 수입 물량이 증가

- 미국 내 소 사육두수 회복에 수년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쇠고기 생산은 내년에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년도 미국 내 쇠고기 수입은 지난해보다 9% 증가한 111만 톤으로 전망

○ **(쇠고기 수출 호조)** 금년 4월까지 수출은 일본, 멕시코, 홍콩 수출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7% 증가(334천톤)

- 2013.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범위 확대(기존 20개월령 → 30개월령

이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확대)에 따라 일본측의 수요가 증가

- 멕시코에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소 사육두수가 감소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요가 증가

- 4월까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내 생산량 감소와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하반기에는 수출 수요가 줄어들어 총 수출물량은 지난해보다 3% 감소한 114만톤 전망

U.S. Beef Exports

	Jan - Apr 2013 (mil. lbs.)	Jan - Apr 2014 (mil. lbs.)	Percent change
Japan	171.2	186.5	9%
Mexico	104.1	145.1	39%
Hong Kong	79.0	128.0	62%
Canada	146.3	109.0	-26%
South Korea	88.6	95.1	7%
Taiwan	33.7	29.2	-13%
Other	114.3	97.1	-15%
Total	737.3	790.0	7%

Source: http://www.ers.usda.gov/data-products/livestock-meat-international-trade-data.aspx.

2 돼지고기

○ **(생산량 유지)** 돼지유행성설사병(PED) 피해 영향으로 도축두수가 줄어든 대신에 도축출하 체중을 증가시킴으로써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을 유지

- 금년도 총 생산량은 전년대비 1.6% 감소한 1,034만톤으로 전망

○ **(수출 증가)** 금년 4월 수출은 436백만톤(198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10% 증가

- 미국산 돼지고기 공급이 넉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수요와 주요 수입국인 일본, 멕시코, 콜롬비아, 한국, 대만 등에서 질병 문제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U.S. pork exports to 10 largest foreign destinations, April 2014 and 2013

	Country	April 2014 Milion lbs.	April 2013 Milion lbs.	Percent change (2014 / 20123
	World	436	397	9.9
1	Japan	123	109	12.9
2	Mexico	107	98	9.0
3	South Korea	47	25	90.1
4	Canada	46	41	13.0
5	China\Hong Kong	36	48	-25.4
6	Australia	16	15	4.9
7	Colombia	12	7	81.2
8	Philippines	11	12	-5.2
9	Taiwan	6	3	107.9
10	Honduras	5	5	-0.9

Source: http://www.ers.usda.gov/data-products/livestock-meat-international-trade-data.aspx

※ 내용 관련 문의 : 김준걸 검역관 (202-587-6146, bluepine31@gmail.com)

경쟁당국 사상 최고 벌금 기록 경신 전망

o 금년 상반기에 전세계 경쟁당국이 부과한 벌금이 작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금년말에는 **사상 최고의 기록**을 경신할 전망임(**6월25일자 블름버그, 파이낸셜타임즈 기사**).

⇒ 우리 기업들은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내부 compliance 시스템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을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음.

1 보도 내용

o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 및 EU 경쟁당국이 금년 상반기에만 약 $27억(약 2조8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작년 상반기에 부과한 벌금액수를 훨씬 초과하였음.

-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2014 회계년도 1분기에 부과한 벌금은 $709백만으로 전 회계년도의 동분기 대비 3배임.

- 금년에 부과한 벌금 사례 8건중 7건이 자동차부품 담합과 관련된 일본회사에 대한 것으로, 향후 일본인에 대한 강제 인도(extradition) 요구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EU는 금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1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였는바, 이 수치는 작년 전체 벌금인 19억유로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임.

- 동 금액 중 953백만유로가 볼베어링 자동차부품 국제카르텔과 관련된 것임.

- 한편, 브라질, 한국, 일본 및 호주는 이미 작년에 부과한 벌금(과징금) 수준을 이미 초과하였음.

- 각국의 경쟁당국이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관할권과 관련된 갈등(마찰)이 증가하고 있음.

o 중국 경쟁당국(NDRC)은 금년 상반기에 $36.4백만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러시아 경쟁당국은 처음으로 러시아 경쟁법을 외국회사에 적용(역외적용)하였음.

2 시사점

o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과 EU 경쟁총국은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카르텔에 대한 척결을 강조해 왔음.

- 실제 법집행 결과만 봐도 벌금 액수가 매년 증가하여 왔으며,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개인 처벌(감옥 및 벌금)도 확대되는 추세임.

- 4월3일 미국 법무부는 마린호스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이탈리아인 Romano Pisciotti를 미국 셔먼법 위반 혐의로 미국으로 강제 인도(extradition)하였음.

- 미국 법원은 시트벨트등 자동차부품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27개사에 대해서 $2.3billion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가담자 24명은 미국 감옥에서 1~2년의 형을 살고 있음.

o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카르텔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룹 또는 회사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임직원들 대한 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경쟁사들과의 회합시 카르텔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격, 시장분할, 입찰 등에 대한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방법임.

- 인지하지 못하고 회합에 참여했는데 카르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장에서 나오고, 회의에 불참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보관하여 후에 카르텔 의혹으로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내용 관련 문의 : 김형배 경쟁협력관 (202 939 6488, kimhyungbae@hanmail.net)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4.6.27 금)

DOW(0.13% 하락) KOSPI(0.33% 하락) 달러 환율(0.28% 하락)

재경관실

[주가]

	'12말	'13말	'14.2말	4말	5말	06.25	06.26	06.2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3,104.14	16,576.66	16,321.71	16,535.37	16,698.74	16,818.13	16,867.51	**16,846.13**	-0.13%	0.88%	1.63%
Nasdaq	3,019.51	4,176.59	4,308.12	4,103.54	4,247.95	4,350.36	4,379.76	**4,379.05**	-0.02%	3.09%	4.85%
S&P 500	1,426.19	1,848.36	1,859.45	1,878.33	1,920.03	1,949.98	1,959.53	**1,957.22**	-0.12%	1.94%	5.89%
KOSPI (한)	1,997.05	2,011.34	1,979.99	1,961.79	1,994.96	1,981.77	1,995.05	**1,988.51**	-0.33%	-0.32%	-1.14%
NIKKEI (일)	10,688.11	16,291.31	14,652.23	14,304.11	14,632.38	15,266.61	15,308.49	**15,095.00**	-1.39%	-3.16%	-7.34%
FTSE100 (영)	5,897.80	6,749.09	6,809.70	6,769.91	6,871.29	6,787.07	6,733.62	**6,735.12**	0.02%	1.98%	-0.21%
DAX (독)	7,612.39	9,552.16	9,692.08	9,584.12	9,938.90	9,938.08	9,867.75	**9,804.90**	-0.64%	-1.35%	2.65%

[금리]

(단위: %)

	'12말	'13말	'14.2말	4말	5말	06.25	06.26	06.2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월)	0.05	0.07	0.04	0.02	0.04	0.03	0.03	**0.04**	0.01	0.00	-0.03
T/NOTE (10년)	1.78	2.99	2.65	2.71	2.45	2.59	2.57	**2.53**	-0.04	0.08	-0.46
T/NOTE (30년)	2.95	3.90	3.60	3.49	3.31	3.41	3.38	**3.35**	-0.03	0.04	-0.55
LIBOR (Dollar,3월)	0.31	0.25	0.24	0.23	0.23	0.23	0.23	**0.23**	0.00	0.00	-0.02

[환율]

	'12말	'13말	'14.2말	4말	5말	06.25	06.26	06.2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70.60	1,055.40	1,067.50	1,033.20	1,020.10	1,021.00	1,016.20	**1,013.40**	-0.28%	-0.66%	-3.98%
Y / US$	86.46	105.30	101.72	102.38	101.62	101.86	101.74	**101.37**	-0.36%	-0.25%	-3.73%
US$ / EUR	1.3240	1.3736	1.3698	1.3800	1.3603	1.3606	1.3636	**1.3625**	-0.08%	0.16%	-0.81%
CNY / US$	6.2304	6.0628	6.1620	6.2659	6.2431	6.2362	6.2319	**6.2175**	-0.23%	-0.41%	2.55%

[유가]

	'12말	'13말	'14.2말	4말	5말	06.25	06.26	06.2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1.82	107.88	102.40	101.28	103.58	106.03	106.50	**105.84**	-0.62%	2.18%	-1.89%
Dubai ($/배럴)	107.81	108.77	105.55	104.78	106.33	109.76	110.05	**109.89**	-0.15%	3.35%	1.03%

* 최종종가 기준 작성